

# 광주일고의 날? 광주일고의 난!

(亂)

KIA-넥센 2차전 '광주일고 동문 맞대결'서 넥센 후배들 승리

개막전 나지완 5타점

KIA, 10-9 역전승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가 만난 무등경기장에서 '소문난 잔치'가 벌어졌다.

지난 31일 KIA 선동열 감독과 넥센 염경엽 감독의 두 광주일고 출신의 덕아웃 동문 맞대결에 이어 마운드에서도 광주일고를 대표하는 두 투수가 만났다.

KIA 서재용과 넥센 김병현, 광주일고 1년 선후배 박지거가 대결을 벌인 '소문난 잔치'였다.

KIA 5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한 최희섭까지 더하면 광주일고의 박지거 3인방이 졸업 후 처음으로 한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겨루게 됐다.

서재용과 김병현은 지난 2006년 5월23일 큰 무대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각각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선발로 벌인 이날 경기에서는 7이닝 1실점을 기록한 서재용이 승리 투수가 되면서 웃었다. 아무 김병현은 6이닝 3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확장 시절 광주일고 유니폼을 입고 올랐던 마운드에서 전개된 두 번째 맞대결은 김병현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재용이 1회 첫 타자 서건창과의 승부에서 몸에 맞는 볼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서건창의 도루에 이어 정수성·이택근이 나란히 희생 번트와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면서 서재용이 실점을 했다. 박병호의 솔로 포까지 이어지면서 0-2.

서재용이 2회에도 유한준과 이성열의 연속안타를 맞은 뒤 우익수 김원섭의 실책까지 더해 2점을 더 내줬다. 3·4·5회 뒤늦게 환상의 컨트롤이 빛을 발하며 삼자범퇴 행진이 이어졌지만 6회 1사에서 찾아온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이택근의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와 박병호와 유한준의 안타가 터지면서 서재용이 6번째 점수를 내주고 강판됐다. 5.1이닝 6피안타(1홈런) 1사사구 4탈삼진 6실점(5자책).

선배 서재용이 극과 극의 피칭을 하는 동안 타선의 지원을 받은 김병현은 안정된 피칭을 펼쳤다.

김병현은 4회 김선빈의 적시타로 1점을 내주기는 했지만 5회를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우위를 점했다.

6회 김병현이 광주일고 후배 최희섭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내줬다. 앞선 두 타석에서 삼진과 2루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최희섭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하지만 나지완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뒤 안치홍도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 됐다.

넥센이 김영민으로 투수를 바꾸면서 김병현은 5.2이닝을 책임지고 2사 2루에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김영민이 대타로 들어선 신종길에게 투런포를 얻어맞으면서 김병현의 이날 기록은 5.2이닝 4피안타 4사사구 3탈삼진 2실점이 됐다.

대타 한방에 이어 김선빈의 볼넷과 이용규의 2루타로 KIA가 4-6까지 따라 붙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김병현은 고향에서 시즌 첫 승을 안고 돌아갔다. 김병현은 광주일고 대선배인 염경엽 감독의 사령탑 데뷔 첫 승도 책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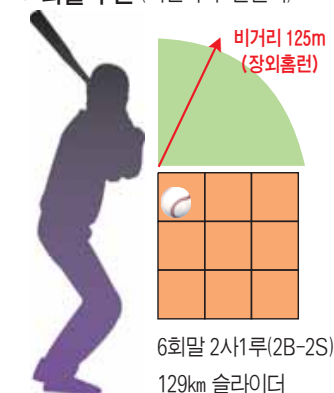
마운드 밖 광주일고의 합대결도 화제거리였다. 넥센의 간담을 서늘게 한 '한방'을 날린 신종길이 광주일고 출신. 광주일고 시절 서재용과 김병현의 공을 받았던 김상훈도 단짝 서재용과



3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KIA와 넥센 경기에서 6회말 2사 2루 대타로 나선 KIA 신종길이 투런 홈런을 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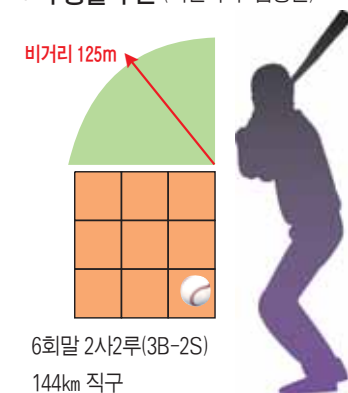
■ 개막전 나지완 홈런

○ 좌월 투런 (넥센 투수 한현희)



■ 31일 신종길 홈런

○ 우월 투런 (넥센 투수 김영민)



◆ 30일 광주 (KIA 1승)

넥센	0	3	0	1	0	0	5	0	0	-	9
KIA	0	0	2	1	1	2	4	0	X	-	10

• 투수=박준표(승·1승) 앤서니(세·1세) 문성현(패)  
 • 홈런=나지완 1호(KIA 6회2점)  
 이성열 1호(넥센 7회2점)

◆ 31일 광주 (KIA 1승 1패)

넥센	2	2	0	0	0	2	0	0	0	-	6
KIA	0	0	0	1	0	3	0	0	0	-	4

• 투수=김병현(승·1승) 손승락(세·1세) 서재용(패)  
 • 홈런=박병호 1호(넥센 1회1점)  
 신종길 1호(KIA 6회2점)

이날 배터리를 호흡을 맞췄다.

넥센은 키스톤 콤비를 광주일고로 꾸렸다. 개막전에서 4개의 안타를 몰아쳐던 2루수 서건창과 넥센의 국가대표 유격수 강정호가 광주일고를 졸업했다.

한편 KIA는 지난 30일 넥센과 화끈한 타격전을 벌인 끝에 10-9로 승리하며 개막전 8연패의 사슬을 끊었지만,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며 2연승에는 실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KIA 서재용(왼쪽)과 넥센 김병현이 합쳐가 공을 뿌리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KIA 시즌 1호 기록



타점·홈런 나지완

안타 최희섭

볼넷·도루 김주찬

승 박준표

세이브 앤서니

실책 김선빈

## 첫 홈런 나지완·첫 승 박준표

KIA '시즌 1호' 기록들

첫 안타 최희섭  
 볼넷·도루 김주찬  
 세이브 앤서니

'기록의 스포츠' 야구의 흥미로운 기록행진이 시작됐다.

지난 30일 개막과 함께 재개된 그라운드들의 기록, 넥센과의 첫 경기에서 10-9의 1점 차 승리를 만든 KIA에서도 타이틀에 어울리는 '시즌 1호' 기록이 나왔다.

외야수 김주찬은 '기동력의 핵'답게 1호 도루의 주인공이 됐다. 1회 1사에서 볼넷을 고른 김주찬은 바로 2루 베이스를 훔치는데 성공했다. 팀 1호이자 올 시즌 프로야구 첫 도루다. 김주찬은 7회에도 도루를 추가하며 상대 배터리를 공략, 결승 득점도 기록했다.

'타선의 핵' 최희섭은 팀 첫 안타 타이를 행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와 나이트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맞추는 급직한 2루타를 때려낸 최희섭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2루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개막전 4번 타자 임무를 맡은 나지완은 5타수3안타5타점의 맹활약으로 자리에 맞는 타점과 홈런 타이틀을 석권했다.

나지완은 3회 2사1루에서 중앙 담장을 때리는 홈런성 타구로 팀의 첫 타점을 만들었다. 6회에는 손맛도 봤다. 나지완은 2사 1루에서 한현희의 129km 슬라이더를 경기장 좌측 밖으로 날려보내며 홈런포 가동에 들어갔다.

KIA의 2013시즌 첫 승은 셋배 박준표의 '깜짝 승'이 됐고, 마무리로 변신한 앤서니는 세이브 수지에 들어갔다.

신인 박준표는 프로 데뷔전에서 승리투수의 영예를 안았다. 승리를 챙기는 데 필요한 공은 5개였다.

6-4로 앞선 7회 진해수·박지훈이 투입됐지만 이성열에게 투런포를 얻어맞는 등 대거 5실점을 하며 6-9로 경기가 뒤집혔다. 2사에서 프로 첫 경기에 나선 박준표는 볼카운트 2-2에서 슬라이더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으며 삼진을 잡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어진 7회말 KIA가 10-9 역전에 성공하며 시즌 첫 승은 신인 박준표의 몫이 안겼다.

9회 10-9에서 등판한 마무리 앤서니는 시즌 첫 세이브를 장식했다.

3루수 홍재호의 실책으로 첫 타자 박병호를 내보낸 뒤 강정호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대주자 유재신이 3루까지 내달렸다. 2루를 노리던 타자주자 강정호가 태그아웃 당하면서 1사3루. 앤서니는 유한준을 삼진으로 묶고 이성열을 3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전금같은 세이브를 기록했다.

환호의 기록도 있지만 아찔한 기록의 주인공도 있다. 시범경기에서 무결점 수비를 자랑했던 김선빈은 9개 구단 선수 중 가장 먼저 실책관에 1을 썼다.

김선빈은 2회 1·2루에서 장기영의 땅볼을 악송구해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4회에도 실책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허도환의 타구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는 등 개막 경기에서 가슴을 졸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덕아웃 말말말

## SUN “뚜껑 열어보니 방망이 뜨겁네”

▲10승에 4승을 책임지셨습니다 =KIA 홍보팀, 선동열 감독이 현역 시절 개막전 선발로 4승을 거뒀다며, 해태 시절 포함 KIA의 개막전 성적은 10승19패2무(승률 0.345)였다. 30일 10-9의 극적인 승리로 타이거즈의 개막전 승률은 0.367이 됐다.

▲성적별 때까지 기르려고요=긴 머리의 최희섭,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냐는 질문에 성적 나올 때까지 기를 생각이라며,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요. 월=최희섭, 광주일고 선배인 서재용·김병현과 함께 프로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하게 된 소감이 어떠한지 질문에, 특별히 긴장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 이젠 바라했죠=지난 30일 삼성과의 2군 연습경기에서 신인 정현에게 홈런을 맞은 김진우, 직구와 체인지업을 던져봤는데 가만히 공을 지켜보고만 있더라며, 커브를 노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직구를 던졌는데 홈런을 맞았다는 설명을 더하면서, 두 번째 실전피칭에서 5이닝 5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김진우는 오는 5일 롯데와의 1군 경기에 선발로 출격할 예정이다.

▲표정 관리해야 해요=프로데뷔전에서 승을 기록한 신인 박준표, 승리투수가 되고도 웃지 않는다고 하자, 행운의 승을 챙겼지만 중간에 실점을 기록한 선배들의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그 얘기를 하네=2013시즌 첫 실책의 주인공이 된 김선빈, 취재진이 액땀한 것이라고 위로하자, 주변에서 다 액땀했다고 하더라며, 지난 28일 자체 훈련에서 오른 발목을 접질렸던 김선빈은 부상 후원에 나섰지만 개막전에서 불안한 수비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뚜껑을 열어보니 뜨겁네=선동열 감독, 시즌 초반에는 투고타저 양상인데 개막 첫날부터 타격전이 벌어졌다며, 두산 오재원이 사상 첫 개막전 1회 만루홈런을 기록하는 등 4개 구장에서는 3개의 만루포와 함께 54점이 나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선 기록은 2000년의 52점이다.

▲잘 잤어요?=투수 앤서니가 선동열 감독을 보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한 뒤, 앤서니의 인사를 받은 선 감독은 눈에 띄게 한국말이 늘고 있었다며 웃었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달렸죠=지난 30일 개막전에서 9회 실책을 기록한 내야수 홍재호,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 죽을 힘을 향해 달렸더라며, 1점차 승부에서 첫 타자 박병호의 타구를 놓쳤던 홍재호는 2사3루에서 이성열의 까다로웠던 3루수 파울플라이를 잡으며 경기를 끝냈다.

▲넥센이 흥행을 책임지네=이강철 넥센 수석코치, 김병현을 고향팀 경기 선발로 내세운다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